



초등교사 임용시험 2차 영어평가에 대한 수험생들의 인식

박선호 (경인교육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October 27, 2022
Revised: December 03, 2022
Accepted: December 30, 2022

Seon-Ho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shpark@ginue.ac.kr

ABSTRACT

Park, Seon-Ho. (2022). Test-takers' perceptions on the English tests conducted in the second round of the primary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1512-1537.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test-takers on English microteaching and English interviews conducted in the second round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in Korea. Writte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pre-service teachers who had recently completed all parts of the 2022 employment examination. Results of the interview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purposes, types, and scoring scales of the English tests owing to which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several challenges while preparing for the test. Second, they were disappointed that the test items in the second round were not disclosed. Hence, they encountered inaccurate test items and had no choice but to rely on private tutoring institutes. Third, the participants felt that the validity of the test items was insufficient.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10-minute English microteaching, they were instructed to meet five conditions, which was a fairly complex task. Finally, the test-takers perceived a gap between the university curriculum they had learned and the items presented on the two English tests, and this did not accurately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chool and the school's need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suggestions for the relevant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searchers to start in-depth discussions and make the right decisions on the issues identified are offered.

KEYWORDS

English interview, English microteaching, English test, primary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test-takers

1. 서론

우리나라에서 국·공립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 임용시험¹을 치러야 한다. 1차와 2차로 구성된 임용시험 가운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어평가 분야는 2차에 속하는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이다. 임용시험이 이제 30년이 넘어선 단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크게 여섯 번 정도 개편이 진행되었다. 특히 2013학년도 시험부터는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이 2차 시험을 자율적으로 출제하게 되면서 체제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신춘호 2020). 하지만 초등교사 임용시험 자체의 성격과 타당도를 분석한 일부 연구는 임용시험 문항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용타당도 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김민조 2019). 이처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연구는 제도에 관한 정당성 및 타당성에 관한 검증과 더불어 각 교과별로 출제경향과 문항 분석을 통한 검증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강훈식 2019, 박지선 2019, 은지용, 박상준 2014, 이재호 2016, 이진희, 김재근, 백은진 2020).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들여다 본 출제 경향은 대부분의 경우 1차 시험인 지필고사에 집중되었다. 1차 시험은 교육과정과 교과별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며, 1차 시험을 통하여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만을 통과시키기에 합격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충분하게 끌만하였다. 반면에, 1차 시험에 비하여 2차 시험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로는 아마도 출제 주관 기관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출제 과정과 사후 관리에 있어서 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이 문항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불투명하여 시험 자체의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차 시험을 합격한 수험생들이 2차 시험을 준비하며 겪는 각종 부담감은 1차에 비하여 적지 아니하다. 2차 시험에서는 먼저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과 같이 교과과정 교수에 대한 지식과 교사로서의 적성 및 지도 능력에 대한 영역에 대하여 직접 실행이나 구두로 답변하는 분야가 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의 마지막 단계에 실시되는 영어평가로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이 있는 것이다. 다른 평가 과목들은 다소 어려워도 우리말로 진행되는 것에 비하여 마지막 두 가지 평가가 모두 영어로 수업을 실연하거나 면접을 수행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수험생들은 적지 않은 부담감 혹은 불안감(foreign language anxiety)을 경험하고 있다(김현진 2010). 이렇게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1차와 2차에 걸쳐 치르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은 총점 가운데 배점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여기는 추정과 위에서 언급한 정보 접근의 한계 등으로 아직까지 연구의 관심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2차는 아니지만, 1차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탐구한 연구로 이완기(2016)가 있기는 하다. 그의 연구는 2013-2015학년도 1차 지필시험 문항을 심층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바탕으로 미래의 영어과 지필시험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서 2차의 주관식 영어 평가와는 동떨어진 연구에 속한다. 이처럼 2차 시험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영어평가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지, 시험 내용과 시행에 객관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관심을 보인 연구는 아직까지는 발견하기

¹ 경기도교육청의 2022학년도 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2022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공식 명칭이었음. 본 논문에서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이라는 약칭으로 대체함

어렵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배점에도 불구하고 영어라는 외국어로 실시된다는 점에서도 긴장감은 시험이 마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낮은 배점의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이 평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수험생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평가 체제와 문항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차 시험의 영어 평가인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에 대하여 수험생들이 평가 진행 및 문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들 시험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인식하는 것을 조사하여 교육관계자나 수험생들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이라는 두 가지 영어 평가의 목적, 항목, 척도 등을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지, 평가 문항이 사후에 공개되고 있는지, 평가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타당하다고 인식하는지, 시험의 수준이나 내용, 형식 등이 교육대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습한 것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관련 각 시도교육청, 교육부와 같은 교육 기관과 교사양성대학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임용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며 그 반응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 첫째, 초등교사 임용시험 수험생들은 2차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평가의 실행 과정 및 문항과 관련한 제반 쟁점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둘째, 초등교사 임용시험 수험생들은 2차 응시 경험을 통하여 영어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미래지향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셋째,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관계되는 교육 기관들과 교사양성대학교는 2차 영어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무를 갖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초등교사 임용시험

유치원, 특수 등 전문 분야를 제외한 일반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모든 과목을 동일하게 치러야 한다(신춘호 2020, 정평강, 김유리 2017, 정혜승, 성소연, 옥현진 2017). 반면에,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국어, 수학, 체육, 영어와 같은 각 교과를 전공으로 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것이 두 시험 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이중복, 전영주 2009, 이지영, 이호 2016). 이렇게 두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시험 체제에 많은 변화를 겪어왔기에 최근의 연구를 위주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연구들은 임용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험의 성격, 타당도 등의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임용시험 제도의 실태를 주로 조명하였다(김민조 2019, 김성천, 홍섭근, 정영현 2017, 신춘호 2020). 예를 들어, 김민조(2019)는

신규 임용시험의 성격과 타당도를 교육평가의 도구로서 갖는 위상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2009학년도부터 11년간의 임용시험에 국한하여 타당도를 분석하였는데,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기준지향 평가, 고부담 시험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타당성보다는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무게가 실리는 특성이 있음을 찾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성 확보의 노력과 함께 임용시험 자체의 패러다임에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성천 외(2017)는 시험 출제 및 관리 현장의 필요에 입각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지역별 교육청의 임용시험 공고문을 분석하여 제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의 교육대 교수, 교사 출제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접 개편안을 만들게 된 과정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임용시험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대 교육과정, 초등임용시험, 학교 현장이 분절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두 번째 연구 부류에는 각 교과별로 문항 분석을 통하여 평가라는 관점에서 문항이 갖는 타당성과 출제 상황과 관련된 관점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들이 속한다(강훈식 2019, 나재권, 이영석 2021, 박지선 2019, 이재호 2016, 이진희, 김재근, 백은진 2020, 정혜승, 송소연, 옥현진 2017).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연구를 교과별로 시도한 사례들은 대체로 1차 시험 평가 도구 중 하나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지필교사를 분석하였다. 정혜승 외(2017)는 2013-2017학년도의 5개년간의 국어과 문항을 형식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하였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각 대문항별로 한 가지의 교수-학습 상황을 설정한 후 다양한 수업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고 하위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교수법적 지식에 관한 문항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제안을 장기 및 단기의 두 가지 방향에서 하였다. 각각의 대표적 사례를 들면, 장기 계획으로는 제약이 많은 출제 상황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는 합의된 텍스트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단기적으로는 출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평가틀을 만들어 기출 문제 분석과 이에 따른 출제 계획을 수립하여 출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있다. 이러한 국어과의 문항 분석과 제안은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텍스트를 확보하자는 건과 같이 언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영어과에도 시사점이 많은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학습 동기 및 시험 준비 과정에서 겪은 경험 등에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임용시험이 갖는 문제점이나 지향점을 제시해주는 연구들이 있다(김경 2018, 김동렬 2021, 최진영, 조현희 2017).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겪는 예비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로는 김경(2018)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특수교사 10명의 임용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임용시험 준비과정 경험을 드러내었다. 분석 결과, 예비교사 수험생들은 대학교에서 수학한 내용과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간에 큰 괴리감을 느꼈으며, 시험 준비 기간에 신체적,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용시험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며 많은 암기를 요구하는 유형이라서 수험생들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의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2 2차 시험의 영어평가: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이라는 평가 과목의 위상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2013학년도부터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11월 중순경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평가 문항 출제와 실행을 담당하는 1차 시험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문항이 서답형(단답형, 서술형) 지필시험 형태로 제시된다(신춘호 2020). 12월 중순에 공개되는 1차 시험 합격자는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로 발표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하는 2차 시험은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출제 및 시험을 진행하는데 이는 지역 교육청에 따라서 2일 혹은 3일 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2차 시험의 예를 2022학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공고문에 나온 사례로 들어 보면, 첫째 날에 ‘교직적성 심층면접(개별면접)’, 둘째 날에 수업능력평가(수업실연 및 수업 나눔), 셋째 날에 영어평가(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정은 지역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띤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날까지의 평가들은 모두 우리말로 진행되는데 100점 만점에 지역에 따라 80점 혹은 90점에 해당하며, 마지막 날에는 본 연구의 대상인 영어평가가 있는데 10점 혹은 20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초점인 2차 임용시험의 영어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먼저 영어수업실연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영어면접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영어수업실연은 소위 영어 마이크로티칭(English microteaching)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대학교에서 영어 교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수업 연습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자주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마이크로티칭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예비교사나 심화연수 참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실시되어 왔다(김현진 2022, 안경자 2015, 은지용, 박상준 2014, 전영주 2012, Paek 2009, Park 2021, Yim 2017). 이들 연구는 영어 수업 모형의 개발 및 적용(안경자 2015), 모의수업에 등장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분석 및 제언(전영주 2012) 등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은지용과 박상준(2014)은 현 임용시험 체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연구인데 영어수업실연에 대해서는 국어로 진행되는 일반교과 수업능력의 평가와 중복되고 영어 구사 능력 평가의 타당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아울러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소 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안경자(2015)는 임용시험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물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 영어교수활동 역량을 기르기 위한 영어 마이크로티칭 모형을 전, 중, 후 단계별로 개발하여 초등예비교사들에게 적용한 후에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 모형이 대체로 자신들이 영어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다고 인식하였지만, 교수평가와 동료평가가 보다 자세하고 비판적이기를 바라고, 자기평가도 보다 자유롭게 성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 김현진(2022)은 임용시험에 대비하여 실시되는 영어수업실연 연습의 효과에 대하여 예비교사들, 즉 교육대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는 46명의 영어과 및 실과과라는 두 심화과정의 예비교사들이 참여하여 영어수업실연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고안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실시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예비교사들은 이 과정이 영어 교수역량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인식이 같았으나, 실습활동의 유용성과 교수역량 향상 정도에 대해서는 영어과와 실과과 심화과정별로 인식

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사양성 프로그램들은 예비교사들에게 초등학교에 진출하기 전에 개별 맞춤형 교육은 물론 전공이나 개인별 수업 준비도에 따른 적절한 실습활동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수업실연은 교원양성대학교의 교육과정에도 속하여 다양한 모습의 강좌 혹은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고 심지어 현직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연수 과정에서도 단골 과목이 될 정도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하여 임용시험 2차에 함께 등장하는 영어면접은 그야말로 시험에는 존재하지만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사연수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험 과목인 것이다. 이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거의 학습해보지 못한 내용을 시험으로 치러야 하는 낮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술지인 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 ‘영어면접’과 ‘임용’이라는 주된 키워드로 하여 검색을 해보면 총 4개의 논문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3개가 초·중등 임용시험 분석이나 임용 목적의 평가 연습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한 개는 경찰채용시험에 관한 것으로 그나마도 면접시험을 다룬 연구가 아니다(정연균 2021). 초·중등 대상 가운데에서는 2개의 연구가 중등교사 선발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1개는 앞서 소개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체제를 진단한 은지용과 박상준(2014)의 연구로 영어면접은 영어수업실연과 더불어 영어구사 능력 평가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등교사 선발을 위한 영어면접시험에 대한 연구 중 이지영과 이호(2016)의 연구는 사전 과업 계획 방식을 개인 및 협업의 2가지 유형별로 분석하여 임용시험 대비 면접평가 연습 가운데 영어 말하기 수행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다. 이종복과 전영주(2009)의 연구는 발표 당시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의 3차 시험으로 치러진 영어면접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영어수업실연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는 167명의 임용 합격자들이 참여하여 교육과정에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다 체계적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영어면접에 관해서는 임용시험에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서나 연구자들의 관심 면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A교육대학교 재학중인 11명의 4학년 초등 예비교사들로 영어교육과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직전 학기에 연구자가 담당하였던 영어교육 전공 과목을 수강하였던 학생들 가운데 SNS(social network services)의 한 가지인 메시지를 통하여 서면인터뷰 참여 의향 여부를 묻고, 이에 제한 시간 내에 참여를 긍정적으로 승낙해온 학생들이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약속이 확인된 가운데 진행된 서면인터뷰에는 총 12명이 참여하였으나 한 명은 문항별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영어교육 심화과정에서 3명,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에서 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경기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의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초등교사 2차 임용시험 응시를 종료한 상태였다. 참여자 11명 가운데 남학생은 두 개의 심화과정에서 각각 한 명씩이었고 대부분이 여학생으로 구성

되는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성명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인용문 가운데는 특정한 두 응답자의 사례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하여 다소 많은 편인데, 그만큼 이들은 거의 모든 질문에 구체적이고 정성스러운 답변을 하였고 시사점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내린 선택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영어사용 능력을 Likert 척도 5단계(1-5점) 점수에서 평균 3.50점으로 답하여 대체로 중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읽기와 듣기 영역이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 비하여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영어수업실연에 필수적인 요소인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 구사도 일반 영어사용능력과 같은 평균 점수(3.50)을 보이고 있었지만, 쉬운 표현을 주로 쓰기 때문에 더 쉽게 사용한다는 의견과 비언어적 요소 등 수업 진행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의 구사하는 것이기에 나름대로 특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여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혼재되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영어교육 심화과정의 학생이라고 해서 다른 심화과정 학생에 비하여 더 나은 영어 능력으로 평가하였다거나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덜 하거나 하지 않았다. 또한 영어에 대한 관심도의 측면에서 영어교육 심화과정의 수험생들은 평균 3.65점, 생활과학 심화과정의 경우 평균 3.78점을 보인 것을 보면 오히려 비영어과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영어에 대한 불안감에서는 영어교육 심화과정의 경우 평균 3.00점이었던 것에 비하여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수험생들은 3.25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총 11명의 응답자 가운데 남성 예비교사는 각 심화과정에 한 명씩 있었는데, 이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불안감 등의 모든 수치는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남학생 경우에서 매 질문마다 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 것을 볼 때, 영어를 심화과정으로 하고 있는가가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어 심화 과정 소속이나 남녀 성별의 여부는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영어 및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어떠한 수준이나 상황에 처하였으며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어느 정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영어교육 심화 과정 학생들이 더 높은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학생들도 대부분 영어교육은 거의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교육대학교 재학 중 강의 중이거나 초등학교 현장 실습에서나 영어 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은 양 영역에서 평균 각각 1-2회에 머물러 예상보다 훨씬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성명	이지선	조현지	한기태	강경민	김수진	유주현	신하얀	정다운	최혜린	강다솜	차보람
성별	여	여	남	남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소속 심화 과정	영어 교육	영어 교육	영어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생활 과학 교육
시험 지원 지역	경기	경기	인천	경기	경북	경기	서울	경기	경기	경기	전남

3.2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응답한 개인에 대한 기본 설문과 서면인터뷰(written interviews)를 실시하여 확보하였다. 연구 참여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는 설문지에는 영어와 영어구사능력, 교실영어 구사능력, 영어교육과 관련되는 자신감, 불안감 등의 질문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프로파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록 1 참조). 기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주로 1-5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서면인터뷰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주관식 답변이 주를 이루었고 일부 질문에 한해서만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의견에 표시하도록 하여 두 가지 유형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교육청의 '2022학년도 임용시험 공고'라는 문서들을 확보하여 설문과 인터뷰 응답 결과라는 자료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2차 임용시험의 영어시험 실행 상황의 구체성과 실제성을 확보하여 이들 자료들이 서로 다각적 역할(triangulation)을 함으로써 질적인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취득 방법 가운데 인터뷰는 면대면(face-to-face) 형식이 아니라, 서면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직접 만나서 실시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임용 시험 2차를 치르고 난 직후라서 매우 지쳐있고 예민한 상황으로 자신이 치른 시험에 관하여 얼굴을 대하며 임하게 되는 줌(ZOOM)과 같은 도구를 활용한 인터뷰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여서 이 방법도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통 면대면 인터뷰가 질적 연구에서 보편적인 데이터 수집 수단으로 선호되어 왔지만(Richards 2003), 이메일, SNS 등 소통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뷰 수행 방법에 대한 선택권도 점차 더 넓어지고 있다. Hawkins(2018)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 중 하나인 서면인터뷰에 관하여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어울리는 자료 수집 방법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서면인터뷰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인터뷰 방식의 뉴노멀(new normal)의 일환을 이루게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19 이후에 서서히 채택이 늘어가고 있는 인터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선호, 최희경 2020, El-Erian 2010).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서면인터뷰는 구조화된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 형식이었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문항이 제시되었다. 문항지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영역 I '영어수업실연'에는 평가의 목적, 측정 항목, 평가 척도에 관한 사전 공지 유무, 문항의 사후 비공개, 영어수업실연의 문항 내 구성 요건의 적합성 또는 타당성 등 5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영역 II '영어면접'에는 면접 문항 내 구성 요건의 적합성, 타당성, 영어면접 준비 방법, 영어면접 시험 준비 방법 등 6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두 가지 영어평가의 공통 항목을 다루는 세 번째 영역인 영역 III '2차 시험 영어평가 전반'에는 이들 두 평가에 대한 미래지향적 제안점, 1차 시험의 영어과 지필문항과 연계한 2차 시험 영어평가에 대한 종합적 의견 등의 3개 문항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역 IV '자유 주제'에서는 영어평가를 대비하는데 교육대학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영어평가 문항과 교육대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자세한 항목 내역은 부록 2 참조). 응답자들은 서면인터뷰 질문지를 받은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하여 자신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비교적 진솔하고 충실하게 응답한 편이었다. 일부 응답의 표현이나 내용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SNS 메시지를 통하여 즉시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회신된 설문 응답과 서면인터뷰 자료들은 항목별, 응답자별로 잘 대비되어 특징이 눈에 쉽게 띠도록 Excel 2016에 병렬로 정리하였다. 각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던 응답 자료들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고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에 따라 항목을 다시 조정하였고 각 주제의 하위에 소제목을 설정하였으며, 이 때 제목들을 인터뷰 문항 순서에 매이지 않고 재구조화하였다. 따라서 일부 문항은 배부하였던 인터뷰지의 원래 위치에서 재구조화된 새로운 프레임에 맞추어 이동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인터뷰 답변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리하는 과정에는 박사학위를 소유한 초등영어교육 전문가인 B교사가 참여하였다. B교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주로 영어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임용시험 2차 영어평가에 평가위원으로 2회 참여한 경력이 있어서 평가자의 안목에도 훈련이 되어 있었다. 또한 B교사 자신이 임용시험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 영역과 관련된 맥락을 능숙하게 포착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와 자료 배열 및 해석의 타당성 등에 관한 상호 검증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가 의미 있게 인지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재발견하게 되는 등의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참여자의 진술 내용은 인용문으로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영어수업실연 평가 내용과 문항의 쟁점에 관한 인식과 평가

4.1.1 영어수업실연 평가의 목적, 항목, 척도 사전 공지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장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활약할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이들이 애초에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치른 평가에서 그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떠한 영역에서 평가하는 것인지, 평가의 척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은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Thomas et al. 2018). 예비교사들은 추후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게 되는데 평가는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임용시험 2차의 평가에서 이러한 문항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응답 참여자 전원이 모든 질문 항목 가운데 가장 고르게 답변에 참여하였다. 물론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그만큼 2차 임용시험 체제에서 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적절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영어수업실연평가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공지되는 것은 일련의 행정적 진행 절차와 유의사항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은 실연 평가에 대하여 선배들의 시험 후기, 합격 후기, 학원이나 시중 서점의 2차 시험 교재,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 등을 통하여 추정하여 알게 된 정도라고 하였다. 각자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특강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였다. 아예 평가의 항목과 척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시험에 응시하도록 방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부분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평가의 목적, 항목, 척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제 주체가 공개해

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이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합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는 임용시험 1차를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공개하며, 또한 이의제기를 받는 등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현 방식은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적 목적에서라도 평가 목적과 항목, 그리고 척도를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평가의 목적이나 척도 등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평가는 신뢰성을 잃게 되며 수험생들은 미로 가운데 온라인에 떠도는 소문이나 사교육 강의나 교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김경 2018). 이렇듯 응답자 전원이 쏟아낸 관련 인식 가운데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²에서 영어 수업실연과 영어면접 교재 전문에 관련된 글을 보았다. 또한 여러 합격 수기에서도 영어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무엇을 평가하는지 명시적으로 안내해준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수진, 생활과학교육)

“○○와 같은 임용 관련 책에 따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강 등으로 정보를 얻는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정다운, 생활과학교육)

“○○○나 2차 임용시험 교재 등을 통해서 구하고 있다. 평가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임용시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보람, 생활과학교육)

4.1.2 영어수업실연 문항의 사후 공개

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문항을 공개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과정의 운영과 향후 교수·학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 활동 가운데 일부이다(김종훈 2022). 연구에 참여한 수험생들에게 영어평가 문항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왜 출제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지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문항을 공개하여 우선 정확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히려 문제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주로 수험생들의 기억에 따른 복기본으로 기출문제가 정리되기 때문에 책마다 모범답안이 다르고 무리한 추정들만 떠돌기도 하며 혼란이 크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준비하기가 힘들다는 입장도 있었다. 문제와 모범답안 모두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 정확한 문제라도 공개가 되어 각자 시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후 연도 응시자도 더 정확한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며 응시자들의 영어능력이 상향평준화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한편, 문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은 부득이하게 사교육이나 판매되는 교재에 의존하여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된다고 하였다. 공적인 문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교육 기관이나 교재 제작업자들의 배를 불리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뿐더러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비

² 세 가지 인용문을 제시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서적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을 모두 익명처리 하였음

판하고 있는 것이다(김경 2018, 이필남, 유정석 2022).

“기출문제가 복기본으로 이루어져있다 보니 모범답안이 책마다 사람마다 다르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문제에 대한 공개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정다운, 생활과학교육)

“문제와 모범답안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범답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만큼은 공개해준다면 자신의 시험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후 년도 응시자도 더 정확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선순환으로 응시자의 영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된다면 초등영어교육의 질 향상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수진, 생활과학교육)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임용고시생들은 2차 시험을 거의 사적으로 구매한 교재에 의존해서 시험을 대비하고 있다. 이유는 평가원이나 각 교육청에서 문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재의 가격이 상당하기에 많은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기에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문제를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보람, 생활과학교육)

4.1.3 영어수업실연 문항 내 구성 요건의 타당성

서면인터뷰 질문 항목 앞부분에 온라인에 복기되어 올라온 모 교육청의 2022학년도 영어수업실연 2차 시험 한 문항을 예시로 제시하고 이 문항 내에 제시된 구성 요건의 적합성 혹은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괜찮다’라고 응답한 수험생은 11명 가운데 3명이었다. 이들은 실제 학교 수업을 반영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라는 조건이 적절하게 느낀다고 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반면에, 주어진 실연 시간에 비하여 조건이 너무 많았다는 의견은 ‘실연 시간에 비해 조건이 조금 많다고 생각한다’(한기태, 영어교육)를 포함하여 5명이나 되었다. 제한된 구상 및 실연 시간에 비하여 조건 아동의 수가 5명이나 포함된 것은 이를 다 반영하기를 기대한 출제자의 의도가 의심될 정도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다. 아무리 만능틀을 사용한다고 한들 여전히 모두를 반영하기 힘든 조건들인데, 더구나 공동체 역량과 같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요소와 영어권에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을 추가로 조건으로 준 것도 과하다는 평가이다. 영어권에 거주 경험이라는 표현 자체도 너무 열린 표현이라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는 저마다 다른 인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업 실연 조건 아동이 5명이나 되는데 이를 모두 반영한 수업으로 근거를 대가며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업의 구성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출제자들 및 관계자들의 심사숙고와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이완기(2017)가 언급한대로 시험의 난도를 높임으로써 공정성을 추구하며 5가지 조건의 아동들을 염두에 둔 수업을 하라는 요구로 인하여 평가의 타당성과 수험생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기도 한다.

“역량 부분을 예로 들자면 의사소통 역량은 수업의 성취기준을 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달 되는 역량이다. 다만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수업 내에서 활동을 끼워 맞춰야 한다

는 느낌이 든다. 자신의 계획을 세우거나 말하는 것인데 공동체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구성 요건이 있는가하는 반면에 조금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맞춰서 시연을 해야 하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한다.” (차보람, 생활과학교육)

“영어수업실연의 구상시간과 실연 시간은 매우 짧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기엔 조건의 수가 과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영어수업실연에서 조건들은 수없이 외운 만능틀 내용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로 수업의 전문성을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차라리 이러한 조건의 반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유주현, 생활과학교육)

4.1.4 영어수업실연 수준, 내용, 형식의 재학 중 학습 가능성

출제되는 영어수업실연 문항은 수험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하여 학습 가능한 수준, 내용, 형식인가에 대하여 영어과 심화과정의 두 명은 교육대학교 재학 중 수학하는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육대에서 배우는 수준으로 임용시험의 영어수업실연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 일반적이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과 임용시험의 괴리에 대한 목소리는 예비특수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정, 2018). 학교에서 마련해준 영어수업실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영어교육 심화과정의 수험생들이 평균 3.00점,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경우 2.63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어교육 심화과정의 경우 2차 대비 특강 이외에도 다양한 영어 사용이 잦은 교육과정을 접하기 때문에 다소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학교에서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3, 4학년 대상으로 그나마 수업실연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1, 2학년에게도 학교 현장에서 할 수업에 관한 내용이나 임용시험과 관련된 수업실연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다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어교육 심화과정의 조현지 예비교사는 교육대 수준에서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배점이 낮고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변별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요구되는 발표 수준은 높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을 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지 않으니 괜찮다는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가이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수업실연의 목표와 평가 척도를 분명하게 제시받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응답자들 가운데 학교에서 수업실연 연습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1, 2학년까지도 확대하여 기회를 넓힌다거나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실영어 표현 및 수업상황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강다솜과 같은 수험생은 영어교육에 비하여 예상문제 접촉의 기회가 부족한 비영어교육과 출신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을 바라는 응답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아예 대학교에서 임용시험에 대비한 준비를 더욱 본격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관점이다. 현 임용시험에서의 영어수업실연의 위상과 의미, 투자할 가치, 변별력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을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에 서게 된다. 아래의 인용문들에 이러한 관심사들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진심어린 목소리가 잘 담겨있다.

“영어수업실연의 경우 학교 재학 중에는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교대 재학 중 하고 있는 수준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배점이 낮고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변별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현지, 영어교육)

“실제로 3,4학년 영어 교과 강의에서 영어 수업실연 연습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2, 3학년 때 영어 수업 실연 기회를 증대한다면 4학년 때 영어 수업 실연에 대한 불안함이 줄어들 것 같다.” (김수진, 생활과학교육)

“솔직하게 말하면 해당 문항은 교육대학교에서 배운 지식들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교육대학교에서도 영어수업실연을 평가할 때 기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강다솜, 생활과학교육)

4.2 영어면접 평가 내용과 문항의 쟁점에 관한 인식과 평가

4.2.1 영어면접 평가의 목적, 항목, 척도 사전 공지

영어수업실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면접에서도 평가의 목적, 항목, 평가 척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전 공지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두 명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응답자들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응답자는 ‘사전 공지가 없지만 문제의 조건에 맞추어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즉, 어차피 문제에 조건이 주어지니 그것에 맞추어 대답을 하면 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차보람 예비교사는 아래와 같이 보통의 면접과 같이 비슷한 목적을 물을 테니 별도의 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응답자들이 면접의 의도를 알 수 있듯 영어면접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다. 이에 별도의 공지 없이 시험이 치러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차보람, 생활과학교육)

위의 두 명을 제외한 9명은 영어면접의 목적과 평가 척도 등에 관한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수험생은 ‘평가 주체의 포괄적인 평가 목적 정도는 사전에 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마치 어느 지역교육청에서는 영어면접에서 교육관을 물어 본다든지, 어느 지역에서는 영어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서 영어교육을 할 경우에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행 된다 등의 확실하지 않은 평가의 방향성으로 수험생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 면에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고 하였다. 한편, 정확한 평가 척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여럿 나왔는데, 아무리 시간에 맞추어 연습을 해보더라도 평가의 척도와 배점 양상이 정확하게

어떠한지를 모르는 가운데서는 연습 과정이 너무 중심이 없어 힘들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수험생 세 명은 평가 척도를 언급하면서 정확성과 유창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평가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척도는 이 항목들에서 어떠한 수치로 점수를 매기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 어떤 다른 직종의 영어면접에 비하여 임용시험에서는 이러한 수험 과정 자체가 향후 교육 현장에서 직접 교육자로서 경험해야 하는 교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이기에 가급적 구체적인 시험 양상을 공개하고 진행해도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수험생들의 준비 과정에 혼선을 줄여주는 길이 아닐까 판단된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수험생들의 의견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으로 준비가 어렵다고 느껴졌다. 평가 척도를 공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대체로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기태, 영어교육)

“교육청에서 영어면접의 목적이나 평가 기준 등을 제공해준다면 그에 맞추어 더 정확히 준비하고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김수진, 생활과학교육)

4.2.2 영어면접 문항의 사후 공개

임용시험 1차 지필시험의 경우에는 문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며 시험이 마침과 동시에 즉시 문항이 공개되어 학생들이 답을 확인해보고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보기도 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된다. 더구나 문항과 모범답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설정되어 있어서 출제자와 수험생, 대학교의 관계자들 혹은 심지어 사교육의 많은 관계자들까지도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험 문항은 매우 엄격하게 출제되고 채점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비하여 2차 시험은 지역별로 많은 수험생들이 확실한 문항 공개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시험 준비를 하며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김현진 2020). 따라서 한 수험생의 말대로 영어면접의 경우에도 관련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차보람 수험생도 ‘출제 문항을 사후에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은지용, 박상준 2014).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듯이 정확하게 문항을 공개해주어야 자신의 답변에서 무엇이 부족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이후의 응시생들도 더 질 높은 답변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시험 후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출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2차 시험을 본 사람들이 자신의 시험 상황을 돌아보거나 다음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혜린, 생활과학교육)

“[문항을] 공개해주면 자신의 답변에서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고 이후 년도 응시자도 더 질 높은 답변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진, 생활과학교육)

한편, 소수 의견으로 한 소신 있는 응답을 한 수험생은 영어면접 문항을 사후에 굳이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문항들에 어떠한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린 문항

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더라도 시험 준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면접 문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이는 개인적 질문, 열린 질문들이 많아 굳이 정확한 문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시험 준비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다운, 생활과학교육)

4.2.3 영어면접 문항 내 구성 요건의 타당성

영어면접 문항 내에 질문으로 구성된 내용 가운데 구성 요건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두 명만이 큰 문제가 없거나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나머지는 문항이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이는 어쩌면 위에서 살펴본 문항의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연계된 문제이기도 할 것으로 보인다. 면접에서 예비교사의 개인적인 측면을 다루는가, 교육관이나 수업과 관련한 문제인가에 따라 수험생들은 색다르게 느끼기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래의 영어교육 심화과정의 수험생은 영어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기존에는 주로 교사로서의 개인적 측면이나, 수업과 관련한 문제가 많았던지라 이번 면접 문항은 색다르게 느껴졌다. 영어로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라면 적합성, 타당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현지, 영어교육)

문항의 요건으로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방향 혹은 취지가 무엇인가를 들 수 있다. 가령 아래의 생활과학교육 심화과정의 두 수험생이 지적한 바와 같이, 4분이라는 아주 짧게 제한된 시간에 문항을 읽고 이해하고 내용을 구성하며 답변을 해야 하는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다를 경우 큰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 '의견'이라는 단어가 모호하여 수험생들의 진술 방향이 각기 다를 것을 우려한 사례도 제시되었다. 이처럼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 문장, 내용의 논리성, 표현의 명확성 등은 사실 매우 긴장된 순간 학생들이 감내해야 하는 수험이라는 입장에서 쉽게 검증할 수는 없으나 어딘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추후 문항이 공개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확인하여 보다 질 좋은 문항으로 거듭나게 되고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나 불안감을 야기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분이란 시간에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답변을 모두 해야 하는데 이번 문항의 경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많아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주변 수험생들 간의 의견도 모두 달라 혼란스러웠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열린 질문이더라도 비슷하게 해석 될 수 있는 문제의 필요성을 느꼈다.” (정다운, 생활과학교육)

“1번 문항의 경우 '의견'이라는 단어가 모호하고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진술 방향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명료한 진술을 희망한다.” (유주현, 생활과학교육)

4.2.4 영어면접 수준, 내용, 형식의 재학 중 학습 가능성

영어면접의 수준, 내용, 형식 등이 교육대학교 재학 시에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영어교육 및 생활과학교육 심화 과정의 수험생이 각각 1명씩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나머지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수험생이 한 명, 나머지는 그렇지 않거나 중간 정도의 답변으로 교육대 재학 시에 이러한 학습을 그다지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영어면접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능숙한 사람에게 유리한 시험임을 지적하였고, 개인적으로든 교육대학교 강좌를 통하든 영어회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수험생들이 절반에 이르렀다. 주로 1학년에 몰려있는 영어회화 강좌를 3학년에 다시 한 번 수강하며 영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거나 다른 학년에도 이어지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아예 영어수업시간에 영어로 말하는 기회를 갖게 하면 더욱 자신감 있게 영어평가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도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영어면접의 문항은 교육대학교에서 배운 것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완전히 운이어서 학교에서 준비시키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도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교육대학교의 제한된 교육과정 일정 가운데 이렇게 세부적인 측면의 임용 시험에서 치르는 영어면접을 위하여 대학교가 어느 정도까지 나서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영어면접 문항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능숙한 사람에게 유리한 평가 질문이다. 영어수업실연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개인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대 수업과정만으로는 면접시험을 대비하기에 결코 충분치 않다.” (유주현, 생활과학교육)

“영어면접 문항은 교육대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전혀 관련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영어면접 문항은 정말 자신의 운인 것 같아서 교육대학교에서 준비를 시키기도 힘들 것 같다.” (강다솜, 생활과학교육)

4.2.5 영어면접 시험 준비 방법

영어면접 시험을 준비한 방법에 대하여 학원, 인터넷강의, 스터디, 단독, 유튜브 활용 등 어떤 식으로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5명의 응답자 모두가 스터디 활동을 들었다. 동료들과 함께 팀을 짜서 진행하는 스터디 활동이 임용시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인 것이 분명해지는 양상이다. 면접이라는 시험이 갖는 특성에서 상호작용성이 갖는 의미를 보더라도 당연히 물어보고 답하는 식의 다인수 멤버가 필요하여 스터디 활동이 가장 애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실제 시험에서 평가자는 말이 없고, 응시자는 종이에 적힌 문항을 읽고 답변하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들의 설문 답변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가 암기, 기출문제, 실제 상황, 모범답변, 시간 분배, 피드백 등이 있었다. 이는 임용시험 2차의 마지막 관문을 건너기 위하여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활동의 마지막 모습들을 반영한 것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다. 짧은 4분간 영어로 진행되는 답변을 위하여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과 함께 예상 모범 답변 암기 및 피드백 활동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의 모든 인용문에서도 스터

디를 통한 공부 활동의 단면을 소개하고 있다.

“스터디로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들고 외운다. 그렇게 외운 문장을 실제 문제에서 거의 그대로 써먹었다.” (강경민, 생활과학교육)

“스터디에서 실제 평가 상황처럼 진행하였다. 집에서 답변을 복기하고 다듬기도 하였으며, 영어 면접 모범답변을 유형별로 외우며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익혔다.” (김수진, 생활과학교육)

“스터디를 구성하여 다른 일반 수업실연과 함께 시간을 분배하여 함께 연습하고 서로 피드백을 진행한다. 또한 추가적인 임용시험 자료, 영상 등을 활용해 연습하였다.” (정다운, 생활과학교육)

4.3 영어평가에 관한 미래지향적 인식과 요구

4.3.1 영어수업실연 평가에 대한 제안

영어수업실연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제안해달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응답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당장 급해 보이는 쟁점으로 영어수업실연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평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라’에 관한 것이다. 평가를 통하여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안내하여 응시하는 예비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발표 시간이 부족하다’의 문제는 수업평가에서 앞서서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현재의 시간으로는 너무 기계적이고 실제감을 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 수험생은 ‘만능틀을 외워서 하는 수준의 수업’이 교사의 역량을 기르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하는 수업과는 너무나 다른 수험 현장 실연에 대하여 회의적인 문제의식을 내비추었다.

셋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현실적인 교육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현재의 다소 기계저긴 수업실연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급해 보이는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영어만을 사용하는 영어수업(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이 이제 더 이상 최선의 방안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뿐더러 학교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수업 방식이기도 한 상황인데, 향후에는 ‘국어와 병행하여 영어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김정인, 박선호 2009). 이러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수험생으로서 직접 실행해 본 그들이 직관적 통찰력을 가지고 내세운 의견들인데 당장 수업평가에 적용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출제 기관과 관계자들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 시도하면 새로운 시행의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 수업 실연이 시간이 짧기에 학생들에게 미러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없다. 이에 수업에 실제감을 주기 위해서 평가 시간을 조금 늘려서 수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보람, 생활과학교육)

“실제로 교직 생활을 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어수업실연과 실제 현장에서의 수업은 완전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만능들을 외워서 수업을 하는 것이 교사의 역량을 기르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강다솜, 생활과학교육)

“영어 수업을 온전히 영어로만 진행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한국어와 병행한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지선, 영어교육)

4.3.2 영어면접 평가에 대한 제안

영어면접 평가는 수험생들에게 은근히 부담되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외로운 시간이다. 영어수업실습은 그래도 요구되는 활동들과 해결해야 하는 과업들이 있어서 말하며 움직이고, 제스처도 취하며 분주하게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데 비하여, 영어면접은 참으로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위원 세 명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데 홀로 문항을 이해하고 주어진 4-5분을 고전분투하게 되는데, 바로 며칠 전에 이러한 실제 경험을 한 수험생들은 영어면접과 관련하여 어떠한 미래지향적 제안을 하였을까를 네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시 수업 실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가 실시의 목적을 미리 안내’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안내가 사전에 주어진다면 평가 준비를 하면서 막막함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수험생은 이와 관련하여 영어면접에서는 유창한 영어능력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사고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영어면접의 중요성과 평가의 목적을 가늠할 때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영어면접이 좀 더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영어면접은 수업실연에 이어서 바로 진행될 뿐더러 시간도 너무 짧아서 답변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없다는 의견이 여럿 나온 것이다.

셋째, 앞의 영어면접 논의 항목에서 크게 강조되었던 ‘면접의 상호작용 필요성’이 다시 등장하였다. 면접은 의사소통이 기반이 되는 것인데 혼자 말하고 있는 것이 영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단순히 문항을 읽고 혼자 대답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것이 보다 더 인간적이고 실제적이며 그런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화자들은 더 생각하며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진짜 대화를 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면접은 단순한 영어 능력 평가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즉답형보다 상호작용식 면접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면접에 관하여 아주 극단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데 왜 영어면접이 필요한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갖든 의견으로 ‘영어면접은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은지용, 박상준 2014). 해외여행을 간다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원어민 교사가 있다면 두려움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영어면접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그 가치나 효용성이 명확하지 않으니 수험생들 간에는 정서적 긴장감만 더해주는 영어면접이 이토록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가 실시 목적을 미리 안내한다면 영어면접 평가 준비에 대한 막막함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최혜린, 생활과학교육)

“면접은 의사소통이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에 단순히 문항을 읽고 혼자서 대답하는 것이 아닌 면접관이 영어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바뀌어도 좋을 것 같다.” (차보람, 생활과학교육)

“해외여행을 간다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원어민 교사가 있다면 두려움 없이 대화를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강다솜, 생활과학교육)

5.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중 2차의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평가와 관련된 제반 양상에 관하여 11명의 예비교사 수험생들이 느끼는 인식을 설문 조사와 서면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수험생들의 생생한 수험 준비 과정과 시험 응시의 따끈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의견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여 제시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실제적인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추출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 교육청의 책임 아래 진행되고 있는 2차 시험인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의 두 가지 영어평가에 관하여 예비교사 수험생들은 시험에 관한 공지에서부터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시험의 공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행정편의주의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두 가지 평가에 관하여 시간별 진행 방식, 장소 등의 기본 실무적 안내는 제시되지만 각 시험의 목적이나, 유형, 채점 척도 등이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으로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인식하였다. 이렇듯 제한된 시험에 대한 정보로 인하여 시험에 관한 상당 부분의 정보를 사교육 시장에서 강의를 수강하거나 교재를 돈을 지불하고 구하든지, 인터넷 상에서 이전에 응시했던 선배들의 후기를 검색하여 얻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족 수준이 높았다(김경 2018, 이필남, 유정석 2022). 어떠한 평가의 척도를 가지고 평가가 진행되는지 등을 명쾌하게 공개해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은 수업실연이나 면접을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초점을 맞추어 할 수 있게 되어 심리적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업실연과 면접의 두 가지 영어평가 문항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높은 편이었다. 종료 후에 시험지를 들고 나올 수도 없고 문항이 발표되지도 않아서 위와 마

찬가지로 문항 자체에 대한 정보가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기억을 조합하여 복기본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과정을 주관하고 상업화 하는데 능한 온·오프라인 사교육 업체들의 수익 사업에 일조하는 일이며, 정작 수험생들이 순수하게 무료로 기출문제를 시·도교육청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기관에서 내려 받을 수 없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문항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은 문항도 아주 정확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채, 이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도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여 무엇이 바른 방향 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연속으로 답답한 수험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관계된 평가 기관은 현행의 비공개 체제가 과연 교육적으로 올바른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임용시험 지원자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연구에서 이필남과 유정석(2022)은 초등 임용시험 지원자의 준비기간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31만원, 학원 수강 등에 47만원, 특강 등에 22만원을 지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비의 한 가지 중요한 요인 중의 한 가지가 공개되지 않는 시험 관련 정보로 인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종훈(2022)도 공개된 평가 문항을 이용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역설한 것을 보더라도 임용 2차 평가 문항 비공개 정책은 개선되어야 할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각 지역의 교육청이 출제된 문항을 각각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거나 아니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공개하든지 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대외적으로도 검증받고 수험생들도 분명한 상황과 올바른 길이 보이는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환효과(washback effect) 측면에서 일부 역효과를 우려하여 문항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더욱 바람직한 문항 제작과 수험 준비를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정보 공개를 기대하게 된다(김수미 2015).

셋째, 임용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하면서 느끼는 인식은 시험의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 영어수업실연에서 요구되는 문항의 타당성 혹은 적절성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정적 인식도 상당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어느 지역교육청의 영어수업실연 문항에는 심지어 5종류의 아동들이 있는 영어수업을 조건으로 제시할 정도로 무리하게 많은 조건들을 포함하여 10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수험생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처럼 너무 많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수업을 급하게 구성해서 실시해보도록 하는 것은 수험생들로 하여금 수업의 현실성과 진정성을 포기하고 만능틀과 같이 거의 모든 수업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이미 암기해온 도구에 의지하는 등의 순발력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여 과연 교육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다. 최진영과 조현희(2017)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도 위의 토로한 바와 유사하게도 이러한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수험생들은 정작 교사로서의 창의성이나 진정성을 보이며 차별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업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수업으로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김성천 외(2017)도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학교 현장의 영어수업과도 다소 동떨어진 문항과 조건들(예를 들어,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로 인하여 과연 이러한 영어평가가 초등교사가 되는 입문 단계의 자격시험의 내용과 형식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것이다(이완기 2017).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문항 제작 시 구성 및 평가의 타당성이 확보되고 학교 현장의 상황과 요구가 현실적으로 잘 반영되는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당국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노력이 불발될 경우에는 영어평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며 2차 시험의 영어평가 폐지론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을 것이다(은지용, 박상준 2014).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은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이라는 두 가지의 시험 과목이 갖는 특성에 관하여 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정식으로 제대로 접할 수 없었고 달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1차 시험 종료 직후에 대학교 측이 급하게 준비해주는 2차 시험 대비 특별 강좌들로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임용시험에 임하는 예비교사를 위하여 교원양성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인가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는 교육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에 관한 철학적인 관점의 의제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시험으로 측정할 것인가, 아니면 가르칠 만한 것이기에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육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데 피할 수 없다면 4학년 말에 급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평소에 교육과정의 적절한 운용 등을 통하여 대비를 해주는 것도 권장할 만한 방법이 될 것이다. 1차 시험 결과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상황에서 더구나 2차 시험 가운데 80-90%의 배점에 해당하는 다른 시험들은 국어로 실시하는 것에 비하여 영어평가 두 과목은 배점도 많이 낮아서 시간을 들여가며 노력을 기울이기도 힘든데다가 영어라는 외국어로 진행하면서 연습해야 하는 부담감이 억누르기도 하는 것이다(김현진 2020). 여기서 훌륭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한다는 취지의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과 훌륭한 예비교사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다시 필요함이 드러나게 된다(김경 2018). 대학교에서 잘 배운 역량을 검토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평가인지, 임용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교가 문항 등의 실체도 발표되지 않는 정보 가운데 2차 임용시험을 대비시키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에 이어 출제 기관 및 교육양성대학교의 관계자들의 적절한 협력을 통한 합의의 도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성천 외 2017). 이러한 과정에는 신춘호(2020)도 임용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제언하였듯이 특히 교원양성대학교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2차 시험의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에 대한 초등예비교사 수험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발전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초등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 전반과 1차 지필시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평가 문항과 실행 공고문 등을 기초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2차 시험, 특히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과 같은 영어평가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어서 구체적인 실상에 관하여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시험을 치르고 나온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생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연구 및 이해 부족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특히, 일반 직장 상황에 비하여 영어면접을 임용시험의 관점에서 들여다 본 연구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연구계의 상황에서 영어면접 시행 방식에서의 개선 방안이나 수험생이 갖는 불안감 등 작으나마 의미 있는 내용이 보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보고가 전국의 지역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시험 체제의 특성과 문제점, 시기별로 갖는 특성, 출제 상황 시의 제약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에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일에 보다 더 공정하

고 타당성 있는 영어 평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실시된 대상 지역과 참여자 수의 한계로 인하여 탐색한 내용을 일반화 하여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인터뷰 하는 과정이 다소 급하게 진행이 되어 수험생들로부터 더욱 정돈되고 진정성 있는 음성을 듣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정밀한 분석의 기준으로 주어진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인과 관계나 맥락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라든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내는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향후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영어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극복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개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훈식(Kang, H.). 2019. PCK에 근거한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과학과 문항 분석 (An Analysis for science subject item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based on PCK). 《한국과학교육학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39-5, 585-597.
- 김경(Kim, K.) 2018. 예비초등특수교사의 임용시험 준비과정경험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the preparation process for recruitment examination of pre-service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4, 687-707.
- 김동렬(Kim, D. R.) 2021. 초등 예비교사의 과학학습 동기 유형에 따른 과학 배움 과정 탐색(An exploration on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cience-learning processes according to their motivation types). 《초등과학교육》(*Journal of Korea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40-2, 127-144.
- 김민조(Kim, M.) 2019. 교육평가도구로서 초등교사 신규임용 시험의 성격과 타당도 분석(A study on the natures and validity of elementary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as an educational evaluation tool). 《초등교육연구》(*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2-1, 37-65.
- 김성천·홍섭근·정영현(Kim, S., S. Hong and Y. Jung) 2017.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탐색: K교육청의 2차 개선안을 중심으로(The exploration of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lementary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Focused on 'K' office of education's improvement on the second-round examination). 《교육문화연구》(*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2, 259-284.
- 김수미(Kim, S.-M.) 2015. 국가수준 대학입시 선다형 국사 문항이 교수·학습에 끼친 영향 (Effect of multiple-choice questions in Korean history of national-level university entrance exam on teaching-learning). 《역사교육논집》(*History Education Review*) 57, 19-68.
- 김정인·박선호(Kim, J. and S.-H. Park) 2009. 차시별 수업언어 교차 사용을 통한 초등학교 수

- 학 이중언어교육 사례 연구(A case study of bilingual education through teaching mathematics in alternative two languages in an elementary school). 《응용언어학》(*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5-3, 1-43.
- 김종훈(Kim, J.) 2022. 평가가 견인하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개선 방향 탐색: OECD PISA 공개문항 분석을 중심으로(Exploration of assessment-driven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anges: Focusing on open questions of the OECD PISA). 《교육과정연구》(*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0-3, 75-99.
- 김현진(Kim, H. J.) 2020. 예비 영어 교사의 외국어 학습 불안감 및 교수 불안감(Pre-service English teachers'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Anxiety). 《현대영어영문학》(*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4-1, 51-72.
- 김현진(Kim, H. J.) 2022. 교원임용시험 대비 영어 수업 실연 연습의 효과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인식 조사(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the effect of English teaching demonstration preparation for the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영어교과교육》(*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21-1, 43-68.
- 나재권 · 이영석(Na, J. and Y. Lee) 2021. 초등교원 임용시험 체육과 문항 분석: PCK 관점으로(An analysis of PE test items on elementary teacher employment exam from a perspective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한국초등교육》(*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32-4, 75-88.
- 박선호 · 최희경(Park, S.-H. and H. Choi) 2020.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초등영어교사들의 목소리(Voices of elementary English teachers on non-face-to-face online education in the era of COVID-19).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9-4, 273-295.
- 박지선(Park, J.) 2019. 초등 임용시험 과학과 문항 분석: 2001-2018학년도 출제 문항을 중심으로(Analysis of science items in elementary teacher employment tests: Focused on questionnaires from 2001 to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3, 647-661.
- 신춘호(Shin, C. H.) 2020. 초등교원 임용시험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회고와 전망(An historical review of the primary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Retrospect and prospect). 《초등교육연구》(*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3-1, 119-138.
- 안경자(Ahn, K. J.). 2015.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과정 기반 영어 마이크로티칭 모형의 개발 및 적용(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process-based English microteaching model for pre-service primary English teacher education). 《한국초등교육》(*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6-1, 279-301.
- 은지용 · 박상준(Eun, J. and S. J. Park) 2014. 초등교사 임용시험 체제의 진단과 개선 방안(Diagnosis and improvement method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tests). 《열린교육연구》(*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2-2, 67-95.
- 이완기(Lee, W. K.) 서울시 초등교원 임용고사 영어 지필시험의 타당도 연구(A validation of the primary English teacher employment test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 Education). 《한국초등교육》(*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7-1, 189-212.
- 이재호(Lee, J. H.) 2016. 초등도덕과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 및 문항 분석(An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focus on moral subject items).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2, 933-953.
- 이종복·전영주(Lee, J. B. and Y. Jeon) 2009. 중등 영어교원 임용 3차 수업실연과 면접시험에 대한 분석 및 연구(Suggestions of teaching methods based on the analysis of English teachers' employment examination and the needs analysis of secondary English teachers). 《신영어영문학》(*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 239-266.
- 이지영·이호(Lee, J. and H. Lee) 2016. 사전 과업 계획 방식의 차이가 영어 말하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탐색—임용 목적의 면접 평가 연습 상황에서 협력적 방식을 중심으로(The effects of two pre-task planning activities on mock English interviews for teacher selection: Focus on collaborative planning). 《영어영문학21》(*English 21*) 29-2, 249-281.
- 이진희·김재근·백은진(Lee, J., J. Kim and E. Baek) 2020. 초등임용시험의 사회과 문항 및 출제 경향 분석(Trend and item analysis on social studies elementary teacher employment exam). 《사회과교육연구》(*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27-1, 119-134.
- 이필남·유정석(Yi, P. N. and J. S. You) 2022. 교원 임용시험 지원자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영향(A study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teachers appointment exam applicants in Korea). 《교육재정경제연구》(*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31-2, 187-209.
- 전영주(Jeon, Y.) 2012. 영어심화연수 전후 수업분석을 통한 초등영어교사 수업개선내용 연구(An analysis of primary English teachers' teaching skills improvement via pre/post intensive English teacher training).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67-2, 343-365.
- 정연균(Jung, Y. G.) 2021.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의 출제범위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법 중심으로(A study on the scope of questions for the changed police recruitment test: Focusing 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한국공안행정학회》(*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30-3, 291-314.
- 정평강·김유리(Jung, P.-G. and Y.-r. Kim) 2017.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대한 초등 특수교사의 인식 및 개선 요구(Perceptions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the national teacher exam). 《교과교육학연구》(*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1-4, 334-349.
- 정혜승·송소연·옥현진(Chung, H. S., S. Song and H.-J. Ok) 2017. 초등임용시험 문항 분석: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과 문항을 중심으로(An analysis of elementary teacher employment exam: Focusing on the Korean language arts items). 《교과교육학연구》(*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1-4, 290-302.

- 최진영 · 조현희(Choi, J. and H. Cho) 2017. 초등교원 임용시험 수험생들의 경험과 학습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A narrative inquiry into elementary teacher candidates' learning experiences and participation in the qualifying test for teachers). 《교과교육학연구》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1-4, 398-410.
- El-Erian, M. A. 2010. *Navigating the New Normal in Industrial Countrie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Hawkins, J. E. 2018. The practical utility and suitability of email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The Qualitative Report* 23(2), 493-501.
- Paek, J. 2009. The use of microteaching in prospective English teacher train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21(3), 129-146.
- Park, S.-H., 2021.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online micro-teaching of English and evaluation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4), 173-211.
- Richards, K. 2003. *Qualitative Inquiry in TESOL*.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Thomas, D., R. Moore, O. Rundle, S. Emery, R. Greaves, K. Riele and A. Kowaluk 2019. Elaborating a framework for communicating assessment aims in higher education.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44(4), 546-564.
- Yim, Y.-K. 2017. EFL teacher trainees' self-assessment of microteaching performance under reflection.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2(4), 155-176.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Elementary

부록 1. 연구 참여자 기본 설문 내용

I. 응답자 기본 배경	성별(남/여)
	심화과정
II. 영어구사능력과 영어교육 관련 배경	현재 나의 일반 영어 능력(S/L/R/W/어휘/발음 등)의 수준
	현재 나의 교실영어 사용 능력의 수준
	평소 영어에 대한 관심도
	평소 영어에 대한 불안감
	향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도
	향후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영어교육 전문성
	대학교에서나 실습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 실연/실습/실제 수업 등의 경험 유무와 종류

부록 2. 서면인터뷰 항목 구분과 문항별 내용

항목	번호	문항 내용
I. 영어수업 실연	1	영어수업실연 평가의 목적, 항목, 척도 사전 공지
	2	영어수업실연 문항의 사후 공개
	3	영어수업실연 문항 내 구성 요건의 타당성
	4	영어수업실연 수준, 내용, 형식의 재학 중 학습 가능성
	5	영어수업실연에 관한 기타 전반적인 의견
II. 영어면접	1	영어면접 평가의 목적, 항목, 척도 사전 공지
	2	영어면접 문항의 사후 공개
	3	영어면접 문항 내 구성 요건의 타당성
	4	영어면접 수준, 내용, 형식의 재학 중 학습 가능성
	5	영어면접 시험 준비 방법
	6	영어면접에 관한 기타 전반적인 의견
III. 2차 시험 영어평가 전반	1	두 가지 평가에 대한 각각의 미래지향적 제안점
	2	국어가 아닌 '영어'라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실연, 면접 평가에 대한 개인적 의견 (자신감, 외국어불안감, 평가불안감, 향후 교사 생활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평가에 대한 의견 등)
	3	임용시험 1차의 영어과 지필문항과 연계하여 볼 때 2차의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의 문항 구성 및 평가의 목적, 2차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IV. 자유 주제	1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평가에 대비하여 교육대학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2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평가를 비추어볼 때 교육대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